

## 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유악기) 초기 지도자들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신약성서기독교를 표방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되지 않은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고,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신당정교회(김요한 목사, 미국 에모리 대학교 목회학석사), 돈암정교회(최상현 목사,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내수정교회(성낙소 목사, 한의사), 돈암 제2교회(김문화 목사, 애국지사) 및 정릉리교회(박판조 목사)는 모두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낙소는 모진 매를 맞았으며,<sup>1)</sup> 김요한도 세 차례나 투옥되었고, 김문화는 옥고의 후유증으로 1948년 말 또는 1949년 초에 사망하였다. 박판조는 북한에서 남하하지 않았고, 최상현은 6.25동란 때 납북되었으며, 백낙중은 공산군에게 피살됨으로써 채이스의 사역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은 목회자는 환갑을 갓 넘긴 성낙소 뿐이었다.<sup>2)</sup>

1) 성낙소, '제9장 대동아 전쟁과 교회 박해,'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엮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pp. 31-34.

2) 부강교회의 김양선 목사와 왕십리교회의 최추민 목사도 6.25동란 때 납북되었고, 최상현, 백낙중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피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John T. Chase, "First Letter Received from J. J. Hill After His Return to Korea," *Christian Standard*, 25 November 1950, p. 738; John J. Hill, "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1944년 6월 30일까지 기독교회선교부의 기독교회들이 모두 폐쇄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상현 목사와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낙소 목사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 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sup>3)</sup>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 목사는 해방 후 미군정 때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한의사였던 성낙소 목사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한의사였던 애국지사 오현팔 목사는 1919년에 장로교회로 개척했다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폐쇄 당했던 자신의 교회를 해방 직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원하였다. 애국지사로서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소천 직전 30년간을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말년에는 '맨발의 천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 1) 김요한 목사

김요한(金約輪/與範)은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귀국한 감리교 목사로서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채이스와 매일 만나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행 8:38)에 이르렀을 때, 김요한은 채이스에게 자신도 내시처럼 침례를 받고 싶다고 피력하였고, 1937년 1월 23일(토) 공중목욕탕을 임대하여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

*Christian Standard*, 19 May 1951, p. 309.

3) "Christian Heroism" and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1, 3.

다.4) 김요한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5월 22일(토) 한강에서 자신의 19살 된 아들을 포함해서 5명에게 최초로 침례를 베풀었다.5)

김요한은 채이스가 선교부 건물 지하실에 개설한 한국인성서 훈련원의 제1호 학생이 되었고, 약 4년간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 김요한은 채이스가 성서훈련원에서 사용한 제1호 교재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저명한 목사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짜리 전도용 소책자로써 책 제목은 <신약성서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이었다.



김요한 목사, 1937년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B.D.)를 받았다.

김요한 목사는 채이스의 제1호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다. 1937년 2월 교회가 없는 신당동 지역에 가정집을 임대하였고, 가족이 그곳에 이사하여 살면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가 개척되었다.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

4) "An Opportunity" and "Investment Returns," *The Korean Messenger*, April 1937, pp. 1, 3; John T. Chase, "Brother Chase Has His First Korean Convert," *Christian Standard*, 27 February 1937, p. 166; "Language Teacher Baptized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0 March 1937, p. 237.

5) John T. Chase, "Another Victory in Korea," *Christian Standard*, 3 July 1937, p. 602.

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 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sup>6)</sup>

김요한은 선교사들의 한국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와 존 T. 채이스(John T. Chase)에 이어서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로 섬겼다. 1940년 6월 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추측컨대 채이스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채이스에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관보에서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신고 된 연월일이 누락되었다.<sup>7)</sup>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제출되었다.<sup>8)</sup>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채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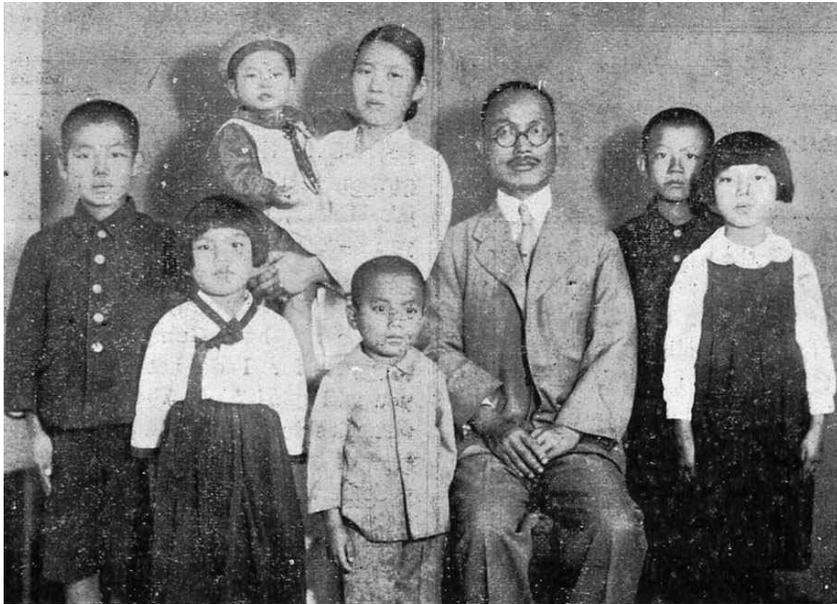
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178호 10-11면, 소화 12년 8월 18일).

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256호 13면, 소화 16년 4월 2일).

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87호 3면, 소화 20년 1월 23일).

지)의 포교폐지계가,<sup>9)</sup>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 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sup>10)</sup>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서 김요한은 세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sup>11)</sup>

## 2) 최상현 목사(1891-1950?)



최상현 목사 가족, 1937년

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1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11)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hristian Standard*, May 1947, p. 9.

최상현은 1891년 12월 27일에 출생하여 진남포의 삼숭(三崇)학교를 거쳐 1912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1919년 3월 제1회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독립선언서 영역에 관여한 일로 잠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북경의 연경대학에서 1년간 수학하였다.

최상현은 문필가였다. 1921년 3월부터 동아일보에 <인물평정(人物評定)의 표준론(標準論)>을 연재하였고, 3권으로 된 <세계위인전>을 펴냈다. 또 최상현은 협성신학교에 재학시절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아보면서 신앙과 역사 및 교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923년부터는 시와 소설들을 발표함으로써 최남선, 방인근, 전영택, 이은상, 임영빈 등과 함께 1920년대 기독교문학운동을 주도하였고, 강명석(일본 관서학원 신학부 및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졸업, '기독의 교회'), 박동완, 전영택, 송창근, 채필근과 함께 <신생명(新生命)>을 펴내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최상현은 목회자였다. 협성신학교 졸업 후 1929년 집사목사 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겼으며,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서 총무업무를 보았다. 이때 서적판매도 겸하였는데,<sup>12)</sup> 자신이 주석한 계시록 12장에 관한 소책자를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갔다가 한국인성서 훈련원에서 학습하였으며,<sup>13)</sup> 곧이어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다. 최상현은 채이스로부터 제2학기 개강일이었던 1937년 9월 1일 한강에서 침례를 받고,<sup>14)</sup> 임대건물에 입주하여 10월 17일 채이스의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였다.<sup>15)</sup>

---

12)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서울 문화인쇄, 2003), pp. 30-31.

13) John T. Chase, "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hristian Standard*, 19 June 1937, p. 553.

14) "Another Preacher Accepts New Testament Christianity,"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7, p. 1; John T. Chase, "The Gospel Wins Another Denominational Preacher," *Christian Standard*, 9 October 1937, p. 937.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sup>16)</sup>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는 1944년 6월 30일 일제에 의해 폐쇄조치를 당하였으나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 예배를 빠트리지 않고 있다가,<sup>17)</sup> 해방 후 돈암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원되었다.

1946-47년 기간에 돈암동교회는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집 2층에서 난방도 없이 40여명이 모이고 있었다. 채이스가 1946년 봄에 최상현으로부터 미군정에 소속되어 연락책을 맡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sup>18)</sup> 1947년 1월 중순경에 입국하여 주일날 돈암동교회에서 설교하였는데, 참석한 다수가 채이스가 1936-41년 사이에 침례를 베푼 성도들이었다. 채이스로서는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제의 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신약성서교회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감명 깊은 순간이었다. 이로부터 2년쯤 후인 1948년 12월 12일에 채이스는 돈암동교회의 집회소인 개인주택 2층이 너무 협소함으로 70-80명이 앉을 수 있는 꽤 큰 널찍한 집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를 후원하였다.<sup>19)</sup>

최상현은 미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채이스가 1947년 1월 중순에 입국하여 2월말까지만 머물고 3월 1일 떠난 수개월 후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던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인 할 마틴이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1947-48년 사이에 채이스의 공백을

15) "Korean Mustard Seeds,"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37, p. 2.

1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304호 4면, 소화 13년 1월 24일).

17) "Christian Heroism" and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op. cit.*

18)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 3.

19) "Come with Me,"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3.

매워주었다. 최상현과 성낙소의 노력의 결과로 채이스가 단기방문으로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돈암동교회(최상현 목사, 침례 14명)와 필운동교회(성낙소 목사, 침례 30명)뿐 아니라, 위동교회(성수경 목사, 침례 8명), 공덕교회(백낙중 목사, 침례 19명), 용산교회(이난기 목사, 침례 28명), 아현동교회(윤낙영 목사, 침례 17명)로 발전해 있었다.<sup>20)</sup>

최상현 목사는 9명의 자녀를 남겨 놓은 채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 때 공산군에 납치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sup>21)</sup>

### 3) 성낙소 목사(1890-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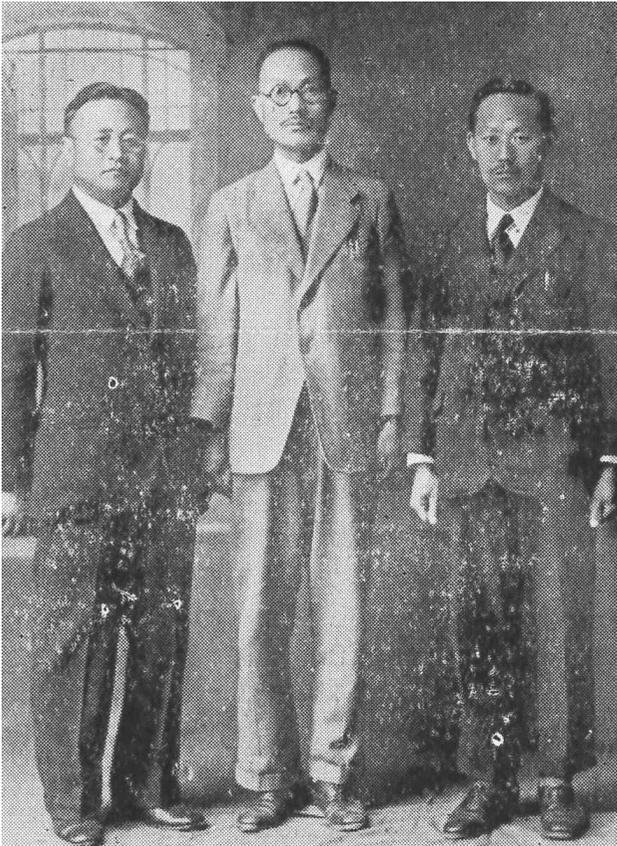
성낙소(成樂紹) 목사는 1890년(호적은 1893년) 5월 16일에 태어나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하였다. 본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이고, 1900년 3월부터 1912년 11월까지 한문을 수학하였다.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1908년 10월 정령 허가두 사관(Colonel Hoggard, 영국인)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구세군에서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염원하던 민중이 제복과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때였다.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던 청년 성낙소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려고 결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지자 포기하였다가 1915년 11월에 경성 구세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9월에 구세군 사관 참위로 임관되어 1917년 3월 부위, 1918년 4월 정위로 승진되었고, 1919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왜경에게 쫓기게 되자, 구세군은 1920년 7월 30일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sup>22)</sup> 포교폐지를 당한 성

20) "The Year 1948,"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1.

21) 최윤권, *op. cit.*, p. 32.

2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438호 2면, 대정 9년 9월 25



체이스 선교사의 제1교회 신양정교회 담임 김복한 목사(1937년), 제2교회 동양정교회 담임 최상현 목사(1937년),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1939년)

낙소는 성결교회 광재근 목사의 추천을 받아 1920년 8월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마치고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 성낙소는 구세군 하사관을 경유하여 정사관에 복직되었으나 1926년 1월에 스스로 구세군 사관직을 사임하였다.<sup>23)</sup>

사관직 사임

후 성낙소는 “기독교 각파가 기독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성낙소는 1927년 정월 초에 충

일).

23)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제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성낙소, ‘제1장 성낙소의 출생과 가정 및 교양,’ *op. cit.*, pp. 9-12.

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妻家) 사랑방에서 구세군교회가 아닌 무교파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출신으로서 동경신학교에 유학한 청년이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뱃삿을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성낙소는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갔고, 커닝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존 T. 채이스의 감독아래 횡빈조선인기독교회(横浜市 宮田町 朝鮮人教會)를 병으로 입원한 담임자 탁영록을 대신하여 1930년 11월에 임시로 담임을 맡았다가 1931년 1월부터 정식 담임자가 되어 9월 사임할 때까지 사역하였다.<sup>24)</sup>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 하순에 박홍순 목사를 대신하여 요츠야선교회로부터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받고 귀국하여 서울 제1교회, 인천 난도(남동)교회,<sup>25)</sup> 기독교회인천교회(송현기독교회)를 섬겼고,<sup>26)</sup> 평북 구성에까지<sup>27)</sup> 기독교회를 설립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포교관리자로서 성낙소가 이런 업적은 1932년 6월 11일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한 것과<sup>28)</sup>

24) 성낙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횡빈조선인기독교회 주임목사로 임명받은 날짜를 소화 5년(1930년) 11월로 기재하였다.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op. cit.*: "Tokyo Notes," *Tokyo Christian*, December 1930, p. 3; "Tokyo Notes," *Tokyo Christian*, January 1931, p. 2; 성낙소, '제2장 자각적으로 신약교회의 명칭을 사용,' *op. cit.*, pp. 13-14.

25)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anuary 1932, p. 2; "Growing," *Tokyo Christian*, June 1932, p. 4.

26)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1; "Miscellaneous," *Tokyo Christian*, June 1933, pp. 1-2.

27)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p. 22.

28)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692호 6면, 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 *op. cit.*,

1932년 12월에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기독교회 경성교회'(성낙소)와<sup>29)</sup>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기독교회 아현교회'(김문화),<sup>30)</sup> 1933년 2월에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에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성낙소)를<sup>31)</sup>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한 것이었다.<sup>32)</sup>

요즈야선교회는 커닝햄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던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을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파송할 목적으로 1933년 5월 20일 성낙소를 해임하고, 이인범을 6월 5일 포교관리자로 선임하였다. 이인범 목사는 9월에 입국하여<sup>33)</sup> 인천 기독교회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었다.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sup>34)</sup> 그리고 이듬해인

p. 22.

2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3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29호 6면, 소화 8년 2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제1857호 6면, 소화 8년 3월 20일).

3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82호 9-10면, 소화 8년 4월 20일).

32) 국가기록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Honest, Unbiased Investigation Welcomed," *Tokyo Christian*, January 1937, p. 2.

33) "A Venture of Faith," *Tokyo Christian*, August 1932, p. 2; William. D. Cunningham, "Enlarged Program for Korea," *Tokyo Christian*, August 1933, p. 1.

3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1937년 4월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이에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성낙소 목사의 포교계,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 및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sup>35)</sup>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성낙소 목사의 포교폐지계나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를 찾을 수 없다. 또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가 1944년 6월 30일 일괄적으로 제출했던 기독교회 포교폐지계와 포교소폐지계에도 성낙소 목사와 경성내수정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창씨를 개명한 흔적도 없다. 이것은 성낙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포교폐지계와 경성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는 것을 반대한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에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는 강제폐쇄를 당한 후에도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건되었다.

성낙소 목사는 1936년 9월 4일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한 후 1937년 4월경에 김문화의 연락으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할 당시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다. 성낙소는 포교폐지를 당할 무렵 적선정에 있던 자신의 경성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경성내수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자신의 포교폐지계 제출로 인해서 목회사역을 합법적으로 지속시켜나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줄 어떤 교단이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1937년경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약 2년 정도 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26일).

3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726호 9-10면, 소화 14년 6월 23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sup>36)</sup>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 및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sup>37)</sup> 채이스도 1939년 4월 20일에 쓴 글에서 성낙소는 기독교회선교부에 가입하기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동일 장소에서 '조선예수교회'(the Korean Jesus Church)로 사역하였으나 그의 교회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제3교회가 된 것은 그가 3년째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신약성서교회를 학습한 결과라고 하였다. 또 채이스는 성낙소가 이 교회를 1939년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로 바꾸기 전부터 신약성서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전하였다.<sup>38)</sup>

채이스 선교사가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한 달간 머물면서 촬영한 3월 10일자 사진에 "내수정교회 제2주년"이란 설명이 있는 것을 보아서<sup>39)</sup> 성낙소 목사가 조선예수교회를 떠나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39년 초가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운동교회가 창립 연도를 1937년으로 잡은 것은 성낙소가 1937년에 채이스와 재회한 직후부터 조선예수교회의 간판만 늦게 내렸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68년 1월 7일자, 28일자, 2월 4일자 필운동 교회 주보(담임 최순국 목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성낙소 목사의 사진과 함께 연속해서 실렸던 이유도 이런 정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성

3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24호 3면, 소화 15년 6월 21일).

3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38호 4-5면, 소화 15년 7월 8일).

38) "May I Introduce to You,"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2; John T. Chase, "A New Church Started at Seoul," *Christian Standard*, 17 June 1939, p. 594; "After Two Years," *Christian Standard*, 18 March 1939, p. 262.

39) 오수강,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p. 6.

낙소 목사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대 목사 중의 한 분으로서 필운동교회에서 1937년도부터 별세하신 해 1964년도까지 시무하신 제1대 목사님이십니다.”

오수강 목사의 증언으로 볼 때,<sup>40)</sup> 성낙소 목사는 1943년에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7월 7일 옮겨간 후 해방 직후 그곳에서 내수정교회를 복원하였고, 이듬해 1946년에 개명하여 본격적으로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연 것으로 추정된다. 채이스가 1947년 2월에 촬영한 사진은 필운동교회로 알려진 건물이었다. 그리고 이 필운동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은 자기 건물을 가진 유일한 교회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연지동의 임대주택에서 개교한 신학교를 이곳 필운동교회로 옮겨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동석기 전도자는 성낙소 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한 내수동 106번지 건물을 1939년 9월에 3,000원에 매입하여 성낙소에게 무상 임대하였다. 동석기는 이 건물을 1945년 해방 직후 회수하여 동년 9월에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sup>41)</sup> 또 동석기는 성낙소가 교회로 사용한 내수동 106-1번지 건물을 1970년대에 추가로 매입하여 이 두 개의 번지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성낙소 목사와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46년부터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면에서 가장 확실히 신약성서교회를 실천하였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채이스와 힐이 미국의 형제들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유능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것은 성낙소 목사와 필운동교회가 내세울만한 업적이다.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1957년 말) 및 <신약교회 목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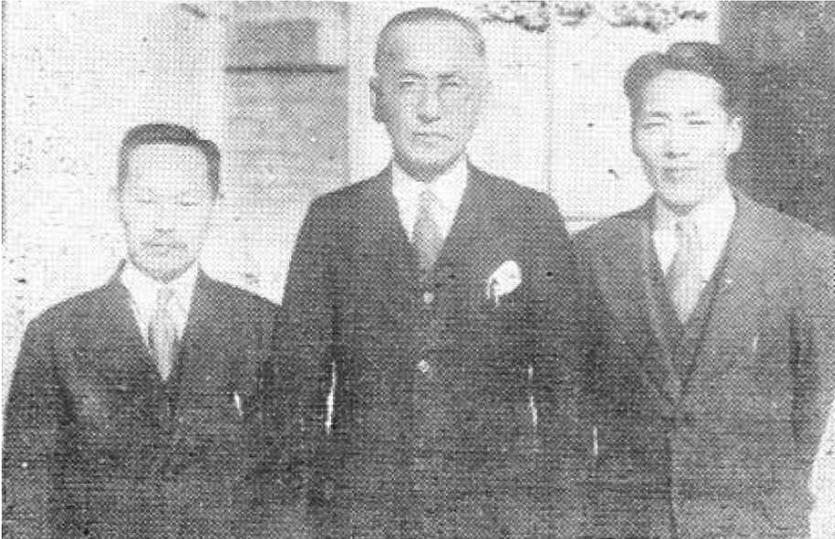
---

40) <주간 기독교> 제1285호, 1998년 3월 22일자; 오수강,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p. 202.

41) 박규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그리스도의 교회>2권 (1962), pp. 19-20.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출판부, 1953) 등을 저술하였다.

#### 4) 김문화 목사



1940년초, 조지프 웨버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  
제4교회 산동암정교회(박만조 목사가 개척) 담임 김문화 목사, 제5교회 청량리교회 담임 박만조 목사

김문화 목사는 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도움으로 기독교회로 환원하였다. 성낙소는 1932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 임계를 제출하였다.<sup>42)</sup> 존 T. 채이스는 김문화(M. W. Kim)가 요즈야선교회에 고용된 목회자란 것과 1933년 8월에 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10월과 11월호에 소개하였다.<sup>43)</sup>

김문화는 1936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

4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1829호 6면, 소화 8년 2월 15일).

43) "Cunningham Notes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October, 1933, p. 1; *op. cit.*, November 1933, p. 2.

부터 성낙소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sup>44)</sup>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초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김문화 목사는 채이스로부터 1937년 6월 7일(월) 박관조와 함께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고,<sup>45)</sup> 1937년 말에 촬영된 한국인성서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었으며, 1937년 4월에 채이스가 찾는다는 소식을 성낙소에게 전한 사람이기도 하다. 채이스는 1939년경에 박관조가 개척한 경성 돈암 제2교회(제4교회)를 김문화가 맡게 하였으며,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소집한 각 교단 대표들의 모임에 최상현, 성낙소와 함께 참여하여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sup>46)</sup>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sup>47)</sup>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sup>48)</sup>

김문화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sup>49)</sup>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돈암정 제2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sup>50)</sup> 김문화 목사가 만일 목포교회의 중

---

4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07호 5면, 소화 12년 1월 26일).

45) John T. Chase,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hristian Standard*, 17 July 1937, p. 6.

46)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43호 3면, 소화 15년 3월 14일).

4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46호 2면, 소화 15년 3월 18일).

4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956호 6면, 소화 15년 3월 30일).

4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5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언대로 김동열 목사의 부친인 것이 확실하다면,<sup>51)</sup> 그는 일제 말에 치른 옥고의 후유증으로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던 부강교회 혹은 김동렬 목사의 신탄진 집에서 소천하신 분과 동일인이 된다.<sup>52)</sup> 채이스는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김문화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장례는 그의 아들의 집(신탄진교회)에서 치러졌고, 성낙소 목사가 주관하고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가 보조하였다.<sup>53)</sup> 김문화 목사는 사망하기 한 주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성서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훌륭한 설교가였다고 전한다.

## 5) 박판조 목사

박판조 목사는 채이스에게 추천될 당시 수년째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는 29살 때인 1937년 6월 7일 김문화 목사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고,<sup>54)</sup> 1937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박판조는 채이스가 자신의 디모데가 될 재목으로 꼽았고, 채이스가 마음을 준 젊고 능력 있는 일꾼이었다.<sup>55)</sup> 1938년 5월 3일에 결혼하였다.<sup>56)</sup>

---

51)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1956-2006)>(2006), p. 289.

52) 지철휘, '내가 보고 알고들은 김동열 목사님'(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

53) John J. Chase, "Workers Contacted,"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54) John T. Chase,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op. cit.*

55) "Korean Mustard Seeds,"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37, pp. 3-4; John T. Chase, "Introducing Pan Jo Pak of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Christian Standard*, 11 December 1937, p. 1154.

56) *The Korean Messenger*, June 1938, p. 1; John T. Chase, "For This Cause," *Christian Standard*, 2 July 1938, p. 657.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sup>57)</sup>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sup>58)</sup>

‘기독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송암 송웅’과 ‘산천 룡’ 두 사람이다. 그들의 주소지로 미뤄볼 때, 송암 송웅은 박판조 목사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송암 송웅이 박판조의 창씨개명이었다면, 그는 1940년 전반기에 기독교회 정릉리교회를 맡았다가 채이스 가족이 모금을 위해 귀국한 다음 존 J. 힐과 김요한이 1940년 여름에 방문하여 설립을 도운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에 부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암 송웅(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 거주)의 포교계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sup>59)</sup>

박판조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sup>60)</sup>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sup>61)</sup> 채이스는 해방 후 박판조 목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남아 한의 업(아마도 약초)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해방직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는, 김

---

57)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37호 12면, 소화 15년 7월 6일).

58)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035호 2-3면, 소화 15년 7월 4일).

59)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130호 4면, 소화 15년 10월 28일).

6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6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일성의 별장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소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지역이다. 당시 북한을 장악한 소련군들은 주둔기간 내내 강간, 폭행, 약탈을 일삼고 있어서 상황이 일제치하보다 더 나빴다.

## 6) 백낙중 목사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힐요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납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백낙중 목사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고, 부부가 모두 교사였다. 최상현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관조와 함께 근 4년간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출석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기독교회 왕십리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sup>62)</sup>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기독교회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

62)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썬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를<sup>63)</sup>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교회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sup>64)</sup>

백낙중 목사는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회 공덕교회를 운영하였다. 채이스는 1941년부터 48년까지 그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1948년 가을 선교사의 입국소식을 듣고 백낙중이 찾아옴으로써 재회하였다. 광복 직후 백낙중 목사는 미육군에 통역관으로 고용되어 있는 동안 부인의 도움으로 공민학교를 세워 매일 학생들에게 성서를 가르쳤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덕교회를 세워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다.<sup>65)</sup>

백낙중은 최상현, 성낙소와 함께 힐 요한이 1949년 2월 18일 재입국하여 연지동에서 개교했다가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긴 선교부신학교의 교수로 섬겼다. 이때의 학생들 중에는 김은석 목사의 제자이자 훗날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애국지사 최춘선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채이스가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하고 협조하여 신약성서교회를 개척하게 한 사람들이고, 일제의 탄압을 이기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상현 목사는 6.25동란 중에 납북되었고, 백낙중 목사는 피살되었다. 최상현은 미군정 때 연락관을 지낸 인물이었고, 백낙중은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통역관으로 일한 교육가이자 목회자였다. 그런 그들의 경력 때문에 납북되어 피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6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4162호 5면, 소화 15년 12월 5일).

64)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65) John T. Chase, "Church Established During War by Korean Christians," *Christian Standard*, 23 July 1949, p. 467.